

투석 환자의 뇌졸중의 임상양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경아, 윤라영, 김세훈, 박무용, 최수정, 김진국, 황승덕

Clinical Features of Stroke in Patients with Dialysis

Kyong Ah Park, La Young Yoon, Se Hun Kim, Moo Yong Park
Soo Jeong Choi, Jin Kuk Kim, Seung Duk Hw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배 경: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뇌졸중의 발병율이 정상 신기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병에 관련된 임상적 자료가 적다. 이에 저자들은 투석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과 이에 관여하는 위험 인자 및 예후를 연구하였다.

방 법: 2001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중 유지 투석을 받는 말기 신질환 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졸중은 임상 증상과 뇌의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였다. 뇌졸중의 유형은 뇌의 단층 촬영 및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근거하여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총 147명의 환자 (남자 77명, 평균 61.0 ± 12.5 세)에서 160건이 발생하였으며, 환자의 80%에서 고혈압, 당뇨는 51%, 심혈관 질환은 14%에서 동반되었다. 열 한 명의 환자에서 2번 이상 발생하였으며, 최대 3번 발생하였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각각 110건 (63.7%)과 49건 (36.4%)이고, 1건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뇌경색 중에는 소혈공경색이, 뇌출혈은 뇌내 출혈이 가장 흔하였다. 뇌출혈 군은 뇌경색 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었으며, 당뇨병 환자가 많았고, 혈중 total protein이 높고, 중성지방이 낮으며, 혈압이 높았고, 생존율이 낮았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빈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투석 시작 후 뇌졸중의 발생 시기는 복막투석 환자에서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 일찍 발생하였고, 입원 시의 사망률은 차이가 없으나 추적한 예후는 복막투석 환자에서 나빴다.

결 론: 투석 환자에서 뇌경색은 뇌출혈보다 흔하지만, 사망률은 뇌출혈이 뇌경색에 비해 높다. 투석 방법에 따른 뇌출혈과 뇌경색의 빈도와 입원 시의 사망률은 차이가 없으나, 복막 환자에서 뇌졸중이 일찍 발생하며, 추적 기간의 예후는 나쁘다.

Key Words: 투석, 뇌졸중, 예후

Dialysis, Stroke, Outcome